

서울, 외국인 가사관리사 '통금' 폐지... 격주급제도 도입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개선안 시행 근무지 이동거리 단축 등 환경 개선 체류비자 연장... 고용불안 해소 기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밤 10시 귀가 확인',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통금' 논란을 낳은 '오후 10시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그간 시범 사업 참여 업체들은 숙소 복귀 시간을 밤 10시로 설정해 놓고 가사관리사들이 전부 복귀했는지 점검해 왔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근무지 배치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까지는 근무시간 위주로 근무지를 설정해 가사관리사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하루에 2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공간을 제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

했다. 시는 일부 가사관리사들이 월급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임금을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매월 20일에 급여를 주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나, 앞으로는 10일과 20일로 분할해

월 2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가사관리사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체류(비자) 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체류 관리와 관련해 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 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이탈 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정의 60%가 다자녀, 맞벌이고 후기를 볼 때 시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방 의대 수시 10명 중 9명 '학생부전형'

종로학원, 의대전형 수시지원 분석 학생부전형, 내신 최상위권 학생 지원 지방 의대, 학생부전형 경쟁 심화 예상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방권 의대에 지원한 학생 10명 중 9명은 학생부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면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자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중복합격에 따른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전형 부문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에 지원한 학생 중 89.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학생부전형에 지원했다. 반면 수도권 의대는 주로 논술전형에 지원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권 의대 지원자들의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부전형에서 내신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는 지방권 의대에 1만8815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923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서울권 의대의 학생부교과전형에는 765명(전년 780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556명(전년 213명)이 지원했지만, 지방권 의대에는 내신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 모양새다.

교과성적과 체험활동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지방대 의대에 지난해(7618명)의 1.4배인 1만904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도 서울권 의대는 7826명(전년 6523명)이, 경인권 의대에는 4023명(전년 2823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늘었지만, 지방권의 옴폭이 더 컸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학생부전형'은 선발인원도 서울, 경인권에 비해 지방권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인원은 1430명(전년 828명), 학생부 종합전형은 780명(전년 442명)이다. 서울권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 65명(지난해 64명), 학생부종합전형 349명(전년 327명)을 선발하고, 경인권 의대는 학생부교과전형 41명(지난해 14명), 학생부종합전형 167명(전년 8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전형의 경우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합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형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올해 학생부전형에 지원자가 몰린 지방권 의대는 추가 합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진 기자 lhj@

저출생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원아 증가

서울, 오세훈표 新 보육모델 흥행

서울시는 저출생 여파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 총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오세훈표 신(新) 보육모델이다. 지난 2021년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로 시작해 3년 만에 25개 자치구, 80개 공동체로 늘었다. 시는 내년에 모아어린이집을 100개 공동체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공동체 내 반편성 조정 등으로 입소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정원 총족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형 모아어

린이집의 정원 총족률은 전체 어린이집(69.0%)보다 8.6%포인트 높은 77.6%이다. 시는 입소 조정(136명)과 반편성 조정(24건)으로 대기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아 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사업 참여 시점 기준 정원 총족률이 40% 미만이었던 10곳 중 8개소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동참 이후 정원 총족률이 치솟았다. 평균 상승률은 66.1%로 나타났다.

시는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원·교사·양육자의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모아어린이집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 점수는 2022년 85.4점에서 작년 90.5점으로 높아졌다.

/김현정 기자

글로벌 도시, 재생 에너지로 미래 대비

빈부격차·저출생 등 도시문제 해결

세계도시들이 저이용 부지 고밀 개발, 신탁 제도,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빈부격차, 저출생, 기후변화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미국 포틀랜드시는 주거·교통·교통 분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몽고메리파크 부지를 고밀 개발하기로 했다. 대

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포틀랜드시는 또 노면전차 노선 연장과 함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트레일 설치를 검토해 친환경적이고 활동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늘릴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포틀랜드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중위소득 수준의 고용 창출, 저렴한 대중교통 연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몽고메리파크 부지 개발 계획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해돋이 / 06:33 | 해질 / 18:06

오늘의 날씨

10월 7일 (월)

음력 : 9월 5일

수도권 날씨

15~23°C

| | |
|-------|------------|
| 운동 지수 | ■■■■■■■■■■ |
| 빨래 지수 | ■■■■■■■■■■ |
| 세차 지수 | ■■■■■■■■■■ |
| 외출 지수 | ■■■■■■■■■■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스라엘, 주말밤 베이루트 남부 공습”
▲무탄소에너지 앞당긴다... CFE이니셔티브 글로벌작업반 출범 /사진 뉴시스

▲수단 콜레라환자 2만명 돌파... 국제기구서 140만 명 분 백신 원조
▲中 외교부 “바이든, 시진핑에 국경절 축하 메시지” /사진 뉴시스



▲日 항공, 외국인 승객에 항공편 무료 제공... 한국은 제외
▲트럼프, 첫 암살 시도 현장에서 다시 유세... 음모론 주장 /사진 뉴시스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